

유적지 순례 99

연잠공(淵潛公) 상명(尙明)과 옥소공(玉所公) 섭(燮)



△문암영당 : 제천시 봉양읍 신동



△연잠공 상명 묘소 : 제천시 봉양읍 신동 문암



△옥소공, 청은공 진영 : 봉양읍 자양영당에 보존



△연잠공 상명 교지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자양영당에 보존



△옥소공 교지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자양영당 보존



△자양영당과 유물전시관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연잠공(淵潛公) 상명(尙明)

공의 증조는 찰방공 주(瑩)이며 조부는 부사공(府使公) 성원(聖源)이고 선고는 영의정으로 증직된 옥유당(玉有堂) 격(格)이다. 공의 자는 현도(顯道)이고 호는 연잠(淵潛)이다. 효종 3년 출생하여 학행으로 통덕랑이 되었다. 공은 미우가 수량하고 명철 하였으며 백씨 문순공과 더불어 성리학을 토론하였는데 청찬이 대단하였다. 독서를 즐겨 경전의 어려운 부분을 통투(通透)치 않음이 없었는데 북서(卜筮)와 풍수지리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현종 15년 이후 우암(尤庵)이 무화를 당하자 윤헌 등과 변무(辨誣)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반응이 없자 일족을 거느리고 낙향하여 청풍의 황강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 후 숙종 6년 29세에 과거에 나아가 초시 합격하였으나 2년 후 병이 들어 한양에서 33세로 졸하니 사림(士林)이 애석히 하였다. 수암선생이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밝으며 성품이 슬기롭고 자질이 곧았다. 성리서를 좋아하여 주역(周易), 서경(書經)을 연찬 근원을 탐구하였고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의술에도 밝았다.”라 하였다. 공은 졸 후 영조 18년 이조참판(吏曹參判)겸 同知義禁府事 5위도총부부총관을 제수받았다. 묘소는 충북 제원군 봉양면 신동 문암에 있다. 묘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짓고 김수증이 글을 쓰고 김수항이 전서를 쓰고 면서는 오대주가 썼다. 묘지는 백씨 상하가 지었다. 훗날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제천시 신동입구(봉양읍 의암로566-7)에 수암 상하(尙夏), 연잠공 상명(尙明), 옥소공 섭(燮), 청은공 영(瑩)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문암영당(門巖靈堂)이 있다. 아들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옥소공 섭(燮)과 대사간 영(瑩)이 있다.

28世 옥소공(玉所公) 섭(燮)

공은 연잠공의 장자로 현종 12년 출생하였다. 호는 백취옹(百趣翁)이다. 공은 백부 수암선생에게서 20여년간 훈도를 받고 삼연 김창흠 농암 김창협선생에게 수학하였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수신으로 일관하다가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19세로 성규현 등과 상소를 올려 소쟁(疏爭)을 벌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과거의 뜻을 버리고 우암이 사시될 위기에 처하자 소를 올렸다. 숙종 22년 중학(中學)의 장의(掌議)로서 선현을 무함하는 한림(翰林)을 논박하는 소쟁(疏爭)을 벌렸다. 제천시 자양영당 수장고에 보존된 공의 교지를 보면 공은 영조 27년 1월 통정대부에 오르고 5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으며, 7월에 부호군겸 5위자에 제수되었다. 또 영조 29년 가신대부에 오르고 영조 32년 86세에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공은 평생토록 많은 시문을 지어 유고로 옥소집 13권을 남겼다. 2000수가 넘는 한시와 75수의 국문시조, 국문소설, 수암선생과 주고받은 800여편의 문답, 80편의 그림을 남겨 영조조에 문예부흥을 주도하였다. 영조 35년에 졸하니 수 89세였다. 묘소는 충북 단양군 서면 장회리 석항(옥순봉)에 있다. 묘비문은 공이 자찬하였고 참판 김세균이 글씨를 썼으며 묘지문은 백부 문순공이 지었다. 배위는 초배가 경주이씨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세필(世弼)의 딸이고 재배는 임전조씨이다. 제천시는 옥소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옥소선생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양면 신동 입구에 옥소선생 문화비를 세웠다. 또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자양영당이 있으며 수장고에 문순공 상하(尙夏), 초당공 옥(燬), 옥소공 섭(燮), 청은공 영(瑩)의 진영이 보존되어 있고, 연잠공과 옥소공의 교지 그리고 옥소공의 간찰인 강상찰(江上帖)과 구담봉 그림이 있으며 최근 옥소문중에서 옥소집 1집 24책을 기증하여 자양영당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 단양 시내 소금정 공원에는 옥소선생 상과 시비가 있어 당대에 제천 단양지방에서 선생을 우러러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옥소공 문학비는 이효순박사가 짓고 김응현이 썼는데 요지는 “문학의 길로 89세를 살며 노래 영삼별곡(寧三別曲)과 도통가(道統歌)를 짓고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등의 시조 75수를 남겨 시가문학사를 빛낸 옥소 권섭선생을 기리며 전국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 비를 세우다. 어릴 때 재능이 뛰어나 촉망을 받았고 수암백부에게서 학문에 힘썼으나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 시로 썼으니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켜 시경(詩境)이 전묘(典妙)한 까닭은 천부적인 재능에서부터가 아니리오 송강(松江), 고산(孤山)의 맥을 잇는 업적은 우리 시가 문학사에 찬연히 남으리오” 아들은 통덕랑 초성(初性), 현감 덕성(德性), 통덕랑 도성(道性)이 있는데 덕성은 중부 영(瑩)에게 출제하였다. 다음은 옥소공이 지은 시 중 한 구절을 소개한다.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天開是峽地明靈(천개시협지명령) 하늘이 이 협곡을 열고 땅이 명령스 러운데
水月天秋分外清(수월천추분외청) 수월은 천추를 흐르면서 외청(신선의 외계)으로 나뉘었네
昔日齋居今廟貌(석일재거금묘모) 지난날 재거하던 곳 지금은 사당으로 바뀌어도
石潭巴谷繼名聲(석담파곡계명성) 석담과 파곡은 그 명성을 잇는 구나
終歲欽危溯峽船(종세익위소협선) 산협을 거슬러 오르는 배 한해가 다 하도록 기울며 위태롭고
東南蒼翠好山川(동남창취호산천) 동남으로 푸른 비취빛 빼어난 산천인데
平岩伏在澄澄畔(평암복재징징반) 맑고 맑은 호반에 엮여 있는 반석

같은 바위들
十里長湖淡淡煙(십리장호담담연) 길게 십리 펼쳐진 호수에 물안개 넘실거리네
註 : 공의 묘소는 황강구곡 중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장회리 구담봉 정상에 있는데 묘비문을 공이 자찬 한 것으로 보아 위 치까지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28世 대사간(大司諫) 청은공(淸隱公) 영(瑩)

섭의 아우로 숙종 4년에 출생하였다. 호는 청은(淸隱)이고 경종 1년 44세로 사마시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영조 8년 55세에 정시문과 병과 급제하였다. 공이 비록 늦게 등과하였으나 끈기와 의지로 입신하여 사간원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도학과 문장이 능하여 문집을 남겼다. 영조 21년 졸하니 69세이며 묘소는 제천 신동에 있다. 묘지는 옥소공이 짓고 묘갈명은 오위도총부 도총관 남당 한원진(韓元震)이 지었다. 아들이 없어 백씨의 차자 덕성(德性)을 계자로 하였는데 장수현감을 지냈다.

옥소공(玉所公) 섭(燮)의 학문사상

옥소공은 한양에서 김창협, 김창흠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송시열의 적통으로 알려진 수암 권상하(尙夏)의 학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처가는 경주이씨 이항복의 증손 세필로 훗날 소론(小論)의 대표적 가문이 되었다. 공은 방대한 학문을 남기었는데 한시, 가사, 시조에 능해서 3,000여수에 가까운 시와 한역소설, 17-8세기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풍속, 예술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 공은 16세에 이세필의 여식과 혼인하고 그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처남과 독서하고 24세에 박세채(朴世采)와 태극(太極)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세필은 현실정치에 가담하는 것을 염려하여 성리학을 공부할 것을 권하였으나 공은 학문이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응사접물(應事接物)하면서 배우겠다고 하였다. 이해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면서 정치권력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격변기였으며 공은 정계에 가담하고자 했다. 공의 배위 이씨가 병사하자 조경창의 여식을 부인으로 맞았다. 조경창은 김창협, 김창흠(호락문쟁 과정에서 각본의 종장으로 추앙받고 당송(唐宋) 고문풍과 천기론(天機論)을 주장한 인물)에게 학문적 영향을 주는 조성기의 재종형제였으며 조경창의 외손녀는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가 되었다. 그러나 김창협은 조광조를 모시는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배향할 경우 주객이 전도 된다고 하는 반면 공은 송시열을 동 서원에 배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 김창협이 쓴 송시열 화상찬을 고철 것을 요청하여 김창협과 사이가 멀어졌다.

노론(老論) 사상계와 권섭의 학풍

당시는 노소분기(老少分岐), 호락논쟁(湖洛論爭) 등으로 서인과 노론의 분열이 일어나던 때였다. 공은 초년에 소론과 낙론의 학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중년에 백부 권상하(尙夏)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한원진 등 호서지역의 노론 인물들과 사상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 사상적 특징은 첫째 이황(李滉)을 존경하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節畧)와 심경석의(心經釋疑) 작업에 이황중심의 주자학 이해를 이어(李瑋)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론 노론계열은 자신들이 주화-이리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정맥임을 자임하고 이를 계승한 송시열이야말로 주회를 계승한 유일한 사람이다(권상하의 한수재집)라 하여 사상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재였다. 이에 영남지방의 반발은 적지 않으니 송시열을 공격하면서 퇴계학의 학문적 전통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권섭은 한원진에게 보내는 편지에 영남인들은 서인들이 퇴계를 존숭함은 율곡을 존숭함만 같지 않다고 여기는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실총(薛聰)과 정몽주(鄭夢周)가 유학(儒學)을 발흥시킨 이후 이황에 이르러서 대비대명(大備大明)하였고 율곡(栗谷)은 퇴계(退溪)를 계승하여 대성하였다고 하였다. 이황에 대한 권섭의 평가는 기호 학계에서 퇴계학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와 맞았다.

둘째 불교에 대해 부분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권섭은 금강산 여행 중 승려와 대담을 벌여 유교와 불교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석가 또한 성인의 자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공자와 석가는 대중을 이끄는 방법이 달랐는데 공자는 정(正)으로 하여 일시에 행할 수 없었으나 공이 있었고 석가는 지(智)로 했던 까닭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는 빨랐지만 유포는 전상을 어그렀다고 하였다. 석가(釋迦)가 성인의 자질을 갖추었고 마음이 공자와 갖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셋째 송시열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제사(祭祀)에 현(顯)자는 원나라에서 나온 것으로 사용해진 안 된다고 하였는데 공은 오랫동안 통용해 오던 것을 고치기 어렵다 하였다. 이러한 공의 비판적 태도는 조선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넷째 한원진을 중심으로 권상하 문하의 제자들이 이간(李柬)을 심하게 논박하는 것에 대해 각정에서 강문제자변(江門悖諸子辨)을 지어 이간을 동정하였다. 끝으로 공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색보다는 사람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사람을 어찌 색목(色目) 때문에 편벽하게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 사람 됨됨이에 달려있을 뿐이다 고 하였다. 또 공은 무신난(戈申亂)의 역적들을 처리함에 있어 선(善)으로 인도하여 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료제공 및 감수 : 권희필, 편집: 현봉 권경석)



△옥소선생 문학비 : 제천시 봉양읍 신동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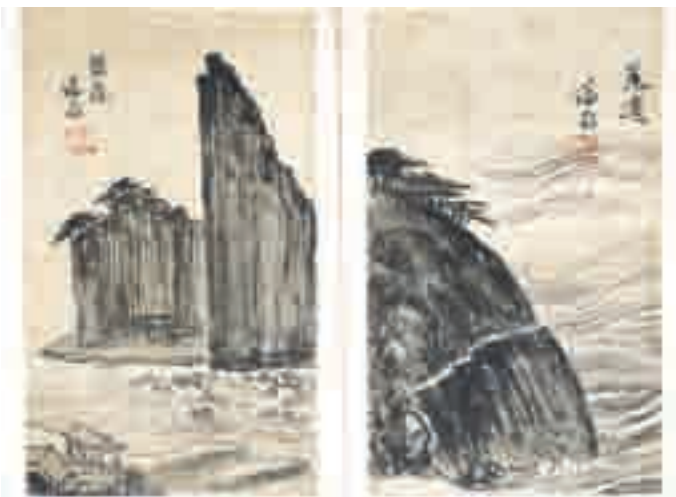
△옥소선생 동상과 시비 : 단양시내 강변 소금정 공원



△옥소공 묘소 : 충북 단양군 서면 장회리 석항



△옥소공 간찰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자양영당 보존



△옥소공 그림(구담봉)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자양영당 보존



△옥소공묘비와구담봉악도 : 장회리 석항 구담봉 공원입구



△청은공 묘소 : 제천시 봉양읍 신동 문암